전남도, 어르신 행복예산 1조7천억

지난해보다 909억 증가…지원 대상자 확대

소득보장·일자리 창출 등 건강·돌봄체계 강화

전남도는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 등 개인별 맞춤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올해 어르신 행복 예산 1조7,094억원을 들여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등 건강과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 행복예산은 지난해보다 90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단독가구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에서 288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6.5% 확대한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변동을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 비율은 80.4%로 전국 평균(67.0%)을 웃돌며 가장 높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만~30만원, 부부가구 6만~48만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5만 2,000개에서 5만 3,000개로 확대한다.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남도장터 내 '은빛장터' 입점을 확대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지원 대상을 7,839명에서 8,094명으로 확대한다.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대면 상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전남도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장동력 실증·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1,000만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 증세가 심한 어르신 26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해 행동활성화 기법을 활용한 로봇을 통해 말벗, 약복용 알람, 체조, 신체·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우울·은둔형 어르신에게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화재감지기, 움직임센서에 기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 장비 3,00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어르신 가정에 3만2,000대를 공급,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고독사가 우려되거나 연고자가 없어 돌봄에 소외된 어르신지킴이단, IoT 대상자에게 ICT장비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어르신지킴이단 2,447명의 활동을 강화해 어르신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해 5만4,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노인인구가 계속 느는 추세에 맞춰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어르신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한번 더 안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17.1%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라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 높아져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길용현 기자

개미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3일 오전 푸른개미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미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광주 확진자 196명 연일 최다치 경신

전날 광주·전남 324명

광주에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 188명, 전남 13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광주는 기존 하루 최다치였던 176명(10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 역시 지난 11일(164명)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데 이어 확산세가 여전하다.

요양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목욕장, 유흥시설 등에서 감염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요양시설 38명 ▲광산구 제조업 3명 ▲광산구 초등학교 2곳 6명 ▲남구 초등학교 3명 ▲동구 의료기관 9명 ▲북구 요양병원 1명 ▲서구 어린이집 2명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 관련 69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27명 ▲유증상 검사 23명 ▲해외유입 7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목욕장·유흥시설 집단감염과 광주 관련 확진자가 지속되면서 ▲목포 52명 ▲무안 9명 ▲나주 23명이 더 나왔다.

기타 지역별로 ▲여수 11명 ▲곡성 7명 ▲해남·영암 각 6명 ▲순천 5명 ▲광양 4명 ▲담양·화순·영광·고흥 각 2명 ▲보성·장흥·완도·진도·신안 각 1명 등이다.

한편, 13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96명, 전남 96명이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도, 중기·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1.1%~2.5% 기업당 최대 5억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0억원으로 확정,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종류별 규모는 ▲임차료, 인건비, 연구개발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 3,800억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에 쓸 시설자금 7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연리 2.0%~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일 경우 연리 1.1%~1.4%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 연리 2.0%,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연리 1.1% 조건이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분할상환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 상환 기간을 유예한다. 일시상환 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해준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연 2.0%~2.25% 변동 금리로 저리 지원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줘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지원을 바라면 14일부터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1~2)으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관할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난이 해소되도록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광주시, 상반기 수소차 보조금 접수

150대 보급…17일부터 1대당 3,250만원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수소전기차 150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올해 수소전기차 1차 보급물량 150대 중 135대는 일반 시민 및 법인에게 보급되고, 1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 우선 대상자에게 보급된다.

하반기에는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최대 15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광주시에 연속해 90일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광주시 내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과 법인·단체 등이다.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매 신청은 1대로 제한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 총 3,250만 원을 지원받으며,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재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17일부터 차량 계약 시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23) 또는 차량 제조·판매사(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는 수소버스 6대를 포함해 수소전기자동차 966대가 보급돼 운행 중이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진곡, 동곡, 임암, 월출 충전소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장등 시내버스 전용 충전소가 다음달 완공되면 기존 시내버스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벽진 충전소를 일반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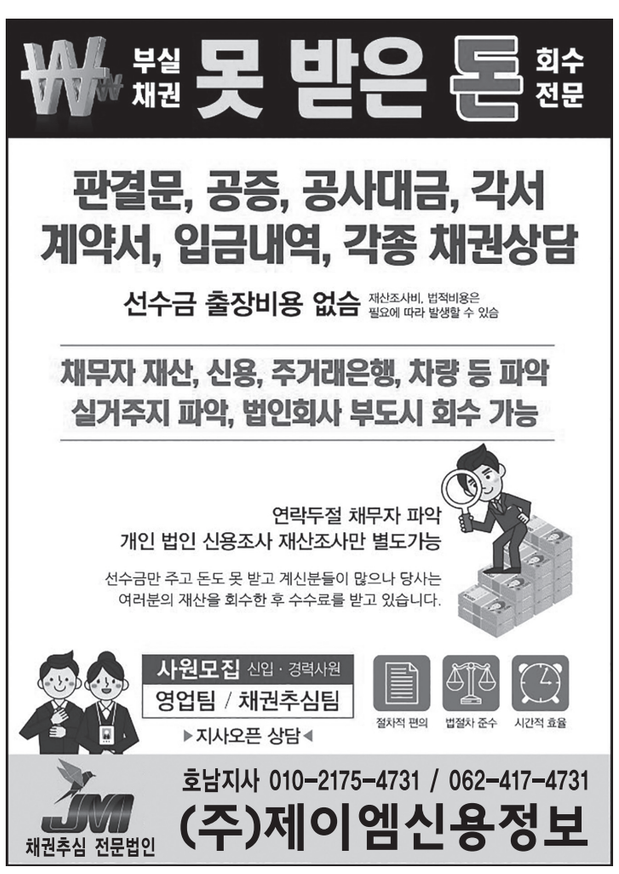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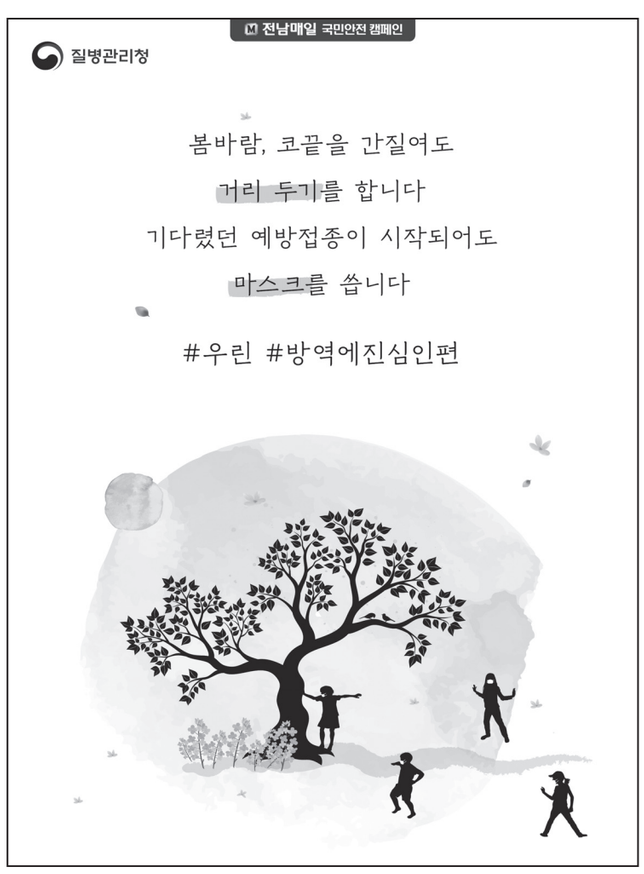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특별점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유덕동 차량기지와 본선(시청~광주역) 6개 공구 등 7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개착식 공법(땅 위에서 흙을 파내 구조물을 설치한 후 되메우는 공법)으로 토지를 굴착한 후 지하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1단계 공사가 시행되는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현장 내 가설구조물의 변형 여부, 강재토류판 및 버팀대 설치 시 설치간격 및 시공상태 등 시방 준수 및 변형 여부, 과굴착에 따른 붕괴위험 여부, 한중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시공 및 양생관리 상태, 건설현장 주변 보·차도의 싱크홀, 포트홀 등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